

| 업종별위원회_ 금융산업위원회 소개 |

4차 산업혁명 맞아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방안 논의

이덕재 전문위원

발족개요

○ (목적 및 배경)

-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정 등 다각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함

○ (추진경과)

-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4.3)에서 구성·운영키로 합의
- 금융업 업종별 위원회 설치 구성 실무협의회에 양대 노동계 공동제안 ('18.5.10)
- 금융업 설치 제안 양대 노동계 실무자 간담회 ('18.5.17)
 - * 양대 노조(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관계자 비공식 간담회(6.27)
- 금융업 설치 관련 노사정 3차례 간담회(8.28, 9.11, 9.28)
-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10.12) 금융업위원회 설치 의결

- 준비위원회(11.15)를 거쳐 금융산업위원회 발족(11.19)

주요의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되 세부적인 논의의 제는 논의를 하면서 정하기로 함

위원구성

- 위원장 외에 해당 업종 노사 각 2인, 정부 1인(금융위), 전문가 4인(공익)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하도록 함

구분	위원 명단
위원장(1)	김유선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계(2)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유주선 사무처장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김용환 수석국장
경영계(2)	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인균 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장
정부(1)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공익(4)	권현지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황기돈 선임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간사(1)	이덕재 전문위원



논의시한

- '18.11.19~'19.11.18 (1년, 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

향후계획

- 금융산업위원회는 이제 막 출범하였고 논의의제는 “금융산업 발전 및 좋은 일자리 관련”으로 포괄적으로 잡고 출범하였지만,
 - 현재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미래 고용불안정 및 복잡한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논의의제들이 진행될 예정임